

西向

백서향 - 장한신 - 군부물 AU

* * *



우리는 누구하나 질문을 해 바른 답을 들을 이가 없었기 때문에 무얼 답으로 내어 놓든, 네가 늘 오답일리 없고, 내가 늘 정답은 아니었을테지만, 네쪽이 ‘그래 네가 맞다.’ 하듯 그러려니, 수궁해주는 순간이 많아, 대체로 내가 답이 되곤 했었다.

그러해 네가 자릴 비우고 나서야 새삼 깨달았던 것인데, 네가 없는 동안, 내가 답이 되는 순간은 참 적더라... 별 볼것없는 일로 아이들이 다투어 울음 지을때에 특히 네가 더 많이 생각이 났다. 너라면 분명, 능숙하게 어르고 달래고, 기분을 매만져 잠들무렵에는 어느 아이 하나 울음기 없이 잠들게 해주었을 텐데... ...배 고픈 것이 매일인 와중에 울다 지쳐 잠든 아이들의 머리맡에 자릴 잡고 앉을때마다. 나의 아집스러운 강단이 아닌 네 허을좋은 익살과 온유함이 필요할때가 많았다.

네가 자릴 비우고 아이들은 웃는날이 많이 즐었다. 한신아.

네 근사한 점은 눈에 보이지 않게 잔잔히, 당연하게 곁에 있더라. 어느때고 손에서 쥐고 놓질 않는 낙관, 곁에 불박아 둔것들은 꼼찍히 어여쁘게 여기어 별다른 잣대를 가져다 대지 않는 점. 저는 그것을 못내 타박하곤 했었으나, 재차 되짚어보니... 네가 인간으로써 갖춘 어설피고 근사한점들은 네 곁에 있는것을 특별하게 만들어주곤 했었더라고... 네가 없는 빈 날을 지새우며 이따금 생각했었다. 조금, 조금만 솔직하게 말을 더 붙여보자면은 ...늘상 타박했지만은, 늘상 핀잔만 늘어놓았지만은 나는 너의 그 귀한 인간다움을 참 좋아했다.

돌아오거든 반겨주자. 무슨 헛짓거릴 했던간에, 몸성히만 돌아오거든,
울음지은 아이들 눈가를 매만지매 그런 생각을 했던 밤이 있었다.

02.

"서서 기절했나?"

키가 눈에 뵈는 만큼 자랐다. 하지만 시원스레 웃는 그 낫 만은 그대로인가. 저 진지한 구석이라곤 없는 투도. 괜스레 세는 숨한번, 생각보다 먼저 나서는 투박한 손짓이 인사보다 먼저였고, 우수수 쏟아지는 짐무더기에는 생전 보도 못한것도 있다. 연히 피어있던것, 제뭉이라는양 건네주었던 것에서는 낯설고도 서글픈 향이 났다.

"그늘에서도 잘 크는 거라던데, 들꽃이랑은 또 다르게 돈 받고 팔더만."

"... .."

"감동이지?"

‘응’, 그 짧은 대답이 입밖으로 나오지 않았던 것이 지금 생각해보면 참 아쉽다.

사실은 사치스럽게 사들고온 꽃 한송이보다, 네가 어느 한 곳 무너진 구석없이 와주어 그게 더 속이 기뻐다고, 그렇게 말해주질 못했던것은 그때는 자신도 어렸기 때문이다. 너와 같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전해야할 말인지를 구분치 못할만큼.

지금 되짚어보자면, 나는 그날 처음, 제 이름 대로 피어나 보았다.

서향 瑞香 으로. 네 덕분에.

03.

목 메인 고성과 둔탁한 주먹이 오갔던 그날,

취고 갔던 새 셔츠가 흙바닥에 굴러 영망이 된걸 주워 입혀야 했던 그날,

처음으로 누군가의 앞에서 비를 쏟고, 언제나와 같이 네가 한풀꺾여 말을 멎었던 그날.

그 날 이후 암묵으로 행해지는 의례가 있었다. 네가 언젠가 사들고 왔던 꽃 한송이처럼, 사든 셔츠를 들고 마을 어귀 널 마중나가 말없이 건네면, 넌 예의 웃는 낮은 접어두고 빈 그릇 같은 무표정으로 잠자코 좇어입는다. 뒤이어 네가 건네주는 불내가 나는 셔츠는 것이 보이지 않게 단단히 몇번이고 접어 품에 안은채 널 등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몇걸음을 걷는다. 말없이.

그날은 현이가 그런말을 했다.

"향이 언니야, 신이 오빠 너무 뭐라 하지 말어."

"고생하잖어. ...바깥에서 고생하잖어."

그날은 그 의례 중 한 단계를 거슬렀다.

"...살아만 와,"

"..."

"...무슨짓을 해도 괜찮으니까, 살아서만 와."

너에게 그 말을 전하며, 그날. 나는 서향瑞香이 아닌, 서향西向으로 남을것을 결심했다. 애초에 저는 제가 어설픈게 받을 담구어 뜻을 통하는 이들과 함께 원대한 희망 내지는 미래를 피워낼 자는 되지 못함을 알았고, 행여 될 수 있을지언정 되지 않기를 다짐했다. 네가 다시 잣더미를 밟고나서러 가도록, 그저 지켜보고 선 주제에, 매양 기다리는것 밖에 도리 없는 주제에, 그리 되고싶지 않았다.

충분했다. 서향西向이면, 네가 다시 불씨도 잿더미도 아닌 너로 돌아올 수 있는 곳으로, 숨붙여 돌아오는것을 받아 안을수 있을 존재면 족하다고...

서향瑞香은 네가 처음 돌아와 한껏 즐거웠던 그날, 한번 피어보았던 것으로 충분하다고...

아이들 입에 들어갈 쌀 한 줍에 네가 죄 깎아 버린 너의 인간다움 한줌을 나는 내 것으로 채워넣길 고집한다. 기어코, 네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04.

"한신이는 아직도 뜻이 없다든? 물어는 보았고."

김씨 아저씨는 종종 네 안부를 물었다. 백기를 기우는 일은 고되고 품이 많이 든다. 젊은 손이 하나라도 더 필요한 일이였다. 알고있었지만 들을때마다 괜히 손끝의 핏기는 가시곤 했다. 늘상 이야기를 할때에 곧게 마주보던 사람 눈도 그때만큼은 다른 일을 찾아 시선을 에둘러 돌려 내리는 것은 여즉 내가 어설피고 서투른 탓이다. 이번에는 헤진 셔츠 소매를 기우며 시선 내깔고, 가만 평이한 투를 입안에서 고르고, 또 고르고.

"그애는 팔랑거리 영 못씨요 아저씨, 일 그르치기 딱 좋아. 이곳 정도 못붙이는것 같고.

...손이 부족하거든, 내가 더 움직일게. 이제 현이도 제법 커서, 내가 더 움직이는게 어렵지도 않아."

사실 아저씨, 나도 뜻같은건 몰라요.

그냥... 그냥, 그 애, 그리고 우리 애들. 그 애들이 알맞은 곳에서 살았음 싶은거지.

굶어죽는것 걱정 않고... 누군가 해치진 않고...

매일을 집에서 잠들지 못해도, 어느날 집에서 잠드는 날, 편히는 잠들고.

표정이 담기지 않을 날이 거의 없는 그애가 잠들때 어떤 낫 인지 알아요?

눈가 밑에 지친 그늘이 짙게 진것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

그 애는 자기가 얼마나 지치고 고된지도 전부 깎아내고 잘라내 버린것만 같아.

나는 그게 참 무서울때가 있어요.

그 애의 무표정은 빈 그릇 같아. 깨질것 같아 무서워.

...언젠가, 이 비뚤어진 세상이 그 애도 완전히 망가트려 버릴까봐서.

그 애는 자기가 가진 귀한 점이 무엇인지는 알까요. 그게 있다고나 생각을 할까 몰라요.

그때 그때 조금씩 말이라도 해줄걸 그랬어.

그 애나 나나 이 땅에서 속붙일 구석이라고는 피차 서로 뿐인데.

범람하는 생각도 말도 단단히 삼키고 봉해 건네는 밀서를 받아드는 수를 잠자코 늘린다.

움직이는 것을 도맡았던 이유는, 어찌면 지레 겁을 먹어서였는지도 모르고,

네 지친낫을 들여보며 헤아리는 밤이 늘수록 쌓여가는 죄책감을 어설피게 가로긋는

행위였을지도 모른다.

지척에 둔 너를, 언제까지 이 다 낡은 셔츠 한장으로 덮어 숨겨두고 있을지가 불안해.

...이젠 소매까지 다 헤진 이 한장으로... 다음에 네가 돌아올즈음에는 짧아 맞지도 않을성

싶다.

그래, 샀이 더 들더라도 이번에 새 옷을 짓자. 네가 다음에 돌아올 즈음에는... 그럼 괜찮을 것이다.

언제나 이렇게 잘 넘어오지 않았다. 그렇게 너에게 배운 낙관 한줌을 오늘도 꼬집어 삼킨다.

05.

"뒤지지도 않네. 눈깔은 동태눈이 다되었는데."

"... .."

귓전에 닿는 이죽이는 목소리에 아득히 멀어졌던, 정신이 어스름히 돌아온다. 공기는 습하다 못해 숨이막히고, 신경만은 선연이 되살아나 비명을 지르듯 온몸을 낭자한다. 가물가물 맑아졌다 흐려지는 시야 너머 흐트러진 머리칼의 일부가 허영게 어른이고... 몸을 일으키려 바닥을 짚은 손가락 몇이 이미 뒤틀린탓에 재차 꼬꾸라 질 무렵, 다시금 쇠 문이 그슬리는 소리와 함께, 무엇하나 온전치 못한 공간임에도 들려오는 목소리가 묘하게 익숙한것이 기이하여 시선이 절로 꼬들어 올려지는 순간. 시야 너머 보이는 낮... 그 찰나.

세상이 야속한 순간이 수도 없었지만, 그 순간 만한것이 있었을까. 방금까지 끼치던 온갖 감각들이 기능을 상실한다. 숨 한줄 눈꺼풀 한번 깜빡이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는, 지독한 찰나.

늘 상 웃음이 가신적이 없던 네 낮이 파리하게 굳는 순간 머릿속에 경종이 울린다. 다른 생각은 미치지 않았다, 그저 지금 입을 떼으면 안된다. 그 생각만이 퍼뜩 만연해, 눈앞이 새빨강게 번져 소리친다. 무어라 소리쳤는지는 지금 더듬어 보자면 제대로 떠오르지 않는다. 난생 처음 느끼는 살을 찌르는듯한 생생한 두려움.

"...모른다고 몇번을 말해! 이 빌어처먹을 인간들아! 생사람 잡아 복날 개잡듯 쥐어패는게 닥들 밥벌이야?!"

"아이고 시끄럽게..."

다행이었던것은, 다행이고도 참담했던것은, 함께 한 세월이 지대하여, 도리없는 한평짜리 공간을 나누며 붙어살았던 시간이 막대하여, 별다른 말 몇마디가 없이도 상대의 속을 헤아리는것이 어렵지가 않다는 것이다. ...그 사실이 지금만큼은, 지금만큼은... 심정을 짓밟아 다독인다.

너와 그간 수많은 세월을 함께했건만, 한번도 마주했던적 없던 표정이 네 낮에 걸린다.

뺨 위로 닿는 손끝이 잘게 떨린다. 늘상 살갓에 닿는 네 손짓은 거리낌이라곤 없었는데...

숨쉬듯 빨던 나른한 투를 쥐어짜듯 빨는 것이 위태롭다.

황폐하고 참혹하다.

내가 쌀 한줌 빵 한쪽 물 한모금 어쩔때에는 꽃 한송이에 너를 깎아내었을 곳은 이토록이나...

생전 들어본적 없던 낯선 네 목소리를 듣는다.

나는 다른 사람으로 너를 낯을세워 비난한다.

다만 이전과는 다른 눈으로는 너를 어르고 또 어른다.

돌아와야지. 이걸 넘어 너는 다시 서향西向으로 돌아와야 하지 않겠니.

네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만큼은, 불을 붙이고 싶지 않았던것 만큼은 안다.

이전보다 길지않았을 시간임이 분명한데도 영겁같다.

다시금 쇠문이 그슬리는 소리가 난다.

그제야 바닥에 고깔 틀어 박았다.

온몸을 태울듯 날뛰는 심장을 붙들고.

현이는 숨이 넘어가라 울다지쳐 잠이 들었고, 최씨 아저씨 아무말없이 고기 한줌을 제손에 들려주고 돌아갔다. 손이 이래놓아 당분간 샳바느질은 못도울것 같다하니 별소릴다한다며 질책하던 김씨 아저씨에게 마르게 웃어보이고, 한잠 자고 일어나니 해가 뉘엿 기울어 있었다. 자릴 털고 일어난다. 몇번이나 오갔을 마을 어귀로 걸음을 옮긴다. 이젠 다 낡아 빠진 셔츠 한장 손에 쥐고, 이 거리는 어디를 가도 선연하게 네가 떠올랐다.

설마, 오늘 오려고. 너나 나나 언제나 좇어 쟁겨 살던 이성에게 참 애석한 일이지만, 오늘만큼은 그게 다를것이라 예감했었다. 달음박질 소리에 고꼐들면 낮익은 모습이 보인다. 절로 말이 세더라.

“...잘하는 짓이다. 간이 배밖으로 나왔지...”

내가 아는 너는 달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사는 것이 고되어 마음처럼 되진 않았지만 너는 느긋할수 있다면 느긋하고자 했다. 네 발이 빨라진다면 분명 꼈끄러운 이유가 존재했다. 너는 무언가에 시달리기도, 쫓기기도 싫은 사람일것이다. 그런 네가 지금, 신발끈이 너털거리며 밟히는 줄도 모른 채 한없이 내달린다. 그 모습을 멀찍이서 가만 들여보고 있자니, 답지않게 시선이 바닥으로 고꾸라진다. 지척에 왔을때 네 눈을 어떻게 마주하면 좋을지 알수가 없어진 탓에.

"너...!!"

난생 처음 듣는 높은 언성에는 절로 목이 움츠러 든다. ...이건 또 처음 있는 일이구나. 살다 살다 장한신한테 혼나는 날도 다있네.

무어라 날선 말이 쏟아질법도 한데 답지않게 한참을 네가 말이 없다. 그 긴 침묵이 무거워, "...사는게 왜이러냐." 어설픈 말 한줄 괜히 중얼이며 슬 시선을 들었을때에-

"무, 야...왜, 왜이래 얘가..! 왜 이래, 야...!"

처음드는 감상은 물밀듯 변지는 당혹감, 나는 이 애의 낮에서 한번도 비가 쏟아지는것을 본적이 없었다. 불평, 불만, 흰소리 많았어도 구질구질해 싫다며 이 매양 서러운 낮 만큼은... 하지만, 지금, 지금... 이 낮을 보고있자니, 방법을 몰라, 비 내리는 법을 몰라, 깨우칠 여유조차 주어지질 않아, 지금껏 피약별같은 웃는낮만 주구장창 걸고 살았나 싶어져, 새삼 그게 상기되어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렸다. 이 황폐한 세상이 네게 비 한줄을 허락하질 않는다니...

"... 세상만사 요령으로 다 잘넘기는게, 이번은 왜 이렇게 어설피, 무슨 별일이라고, 응? 무슨 별일이라고-"

울음도 죄짓는 것마냥 숨이 죽어 앓는 소리만 퐁퐁 고작 세나오는게 속상했고. 그마저도 누군가 볼까 이끌어 그늘가에 끌고들어서야 하는게 안타까웠고. 죄 깎아내어져 너절한 네게서 어설픈 울음만이 주체되질 않고 나오는 것에 목이 매었다.

"... 색만 버렸지 보일건 다 보여. 다 잘 보여."

"... .."

"... 말했잖아. 살아만있으라고, 그럼, 뭘해도 괜찮다고 했잖아. 그랬잖아, 내가-

손을 뺐는다. 이제는 품에서 사지가 넘치는 그 애의 고개를 굽어와 끌어안는다.

풀한포기 나지 않는 이 땅이, 잿더미 날리는 이 시대가 참 지독하다.

이대로 너를 품에 굽어 안은채 어디론가 도망칠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될 수 없는 지금이 한없이 원망스럽고 서럽다.

하지만 지금, 지금 저보다 더 서러운건 그건 너겠거니. 그렇겠거니.

시린 숨한줌 크게 삼키고, 네게 배운 낙관을 오늘도, 이밤에 한줌 더 끄집어 삼키고.

"... 이것도 다, 다 지나갈거야. 지나가. 너 입버릇처럼 말했잖아."

"... 그때까지, 너도, 나도 살아있기만 하면."

"그럼 다 괜찮아 질거야."

